

‘中企 판로지원’ 한곳에 모은다… 비용절감·마케팅 효율 기대

한유원·공영홈쇼핑 통합 결정

21대 국회서 판로지원공사 논의

국내 판매·해외수출 연계 기대

공공성·수익성 충돌 등 과제 산적

통합 후 T·커머스 허가도 ‘파란불’
방미통위, 1개 vs 2개에 관심 쏠려

정부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한유원)과 공영홈쇼핑을 가칭 ‘중소기업마케팅진흥공사’ (중기마케팅공사)로 통합기로 하면서 새 기관이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를 어떻게 이룰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 소상공인 판로개척이라는 임무를 갖고 있는 두 기관을 하나로 합치는 과정에서 논란은 최소화하고 시너지를 극대화하기위해선 갈길이 만만치 않은 모습이다.

7일 중소벤처기업부와 관련 기관들에 따르면 한성숙 국무총리가 지난 3일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하면서 이들 두개 기관의 통합은 기정사실화됐다.



서울 목동에 있는 행복한백화점과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전경.

두 기관 통합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중소기업판로지원공사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대두됐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제품 판로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같은 조직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역임한 임채운 서강대 명예교수는 “두 조직을

하나의 공사로 만드는 것은 예산 절감, T·V·모바일·이커머스 통합, 원스톱 마케팅 지원, 국내 판매와 해외 진출 연계 등 차원에서 기대효과가 클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임 교수는 “통합이 곧바로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공성과 수익성의 충돌 ▲관리·감독 강화속 자율성 위축 ▲지원사업 관료화 ▲고용승계와 조직문화 갈등 등을 우려 요소로 꼽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공영홈쇼핑의 실질수수료율(2024년 거래 기준)은 19.52%로 7개 TV홈쇼핑 가운데 가장 낮다. TV홈쇼핑 평균은 27.67%다.

TV홈쇼핑 뿐만 아니라 모바일까지 100% 중소기업 제품을 취급해야 하는 공영홈쇼핑 특성상 낮은 수수료를 받으면서 지속가능한 수익까지 내야하는 상황이다.

행복한백화점, 동반성장몰, 면세점을 비롯해 중소기업제품 전용 판매장 등을 운영하는 한유원은 2023~2025년 3년 연속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하는 등 수익성이 악화 상태다. 이때문에 일부에선 통합에 대해 공영홈쇼핑이 번 돈을 한유원에 쏟아붓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

통합 과정에서 지배구조도 풀어야할 숙제다.

한유원은 중기부 산하인 중진공이 100%로 출자한 회사다. 하지만 자본금 800억원으로 출범한 공영홈쇼핑은 한유원이 50%, 농협경제지주가 45%,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5%의 지분을 각각 나눠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협경제와 수협이 보유하고 있는 공영홈쇼핑 지분 처리 문제가 대두될 수도 있다. 과거 논의됐

던 중기판로지원공사법에선 새 조직의 자본금을 2000억원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한유원과 공영홈쇼핑간 다른 급여, 인사, 성과체계 등도 관건이다.

임금이 대표적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결산 기준(일반정규직) 공영홈쇼핑의 1인당 평균 연봉은 7628만원으로, 한유원(6776만원)보다 연간 852만원(12.6%) 많다.

오동운 동아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기마케팅공사로의 통합은 옳은 방향”이라면서 “다만 두개 기관만 합칠 것이 아니라 중진공의 수출마케팅 부문까지 더해 중소기업 판로 전담 기관으로 완벽하게 거듭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중진공은 수출마케팅·글로벌화사업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운·오프라인 수출, 물류 및 해외진출 등을 단계에 따라 지원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기마케팅공사로 탈바꿈할 경우 공영홈쇼핑이 오랫동안 염원했던 데이터홈쇼핑(T·커머스) 사업자 선정엔 파란불이 켜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metro

중기부, 中企 공장에 ‘피지컬 AI’ 심는다

과기부와 기술개발·실증 연계
공급·수요기업 연결 시도입 지원
‘모두의 AI 공장장’ 등 사업 추진

중소벤처기업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중소제조 현장의 피지컬 AI 전환과 확산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한다.

중기부는 과기부와 7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 피지컬 AI 실증랩을 방문하고 피지컬 AI 기술 공급기업과 제조 현장 수요기업이 참여하는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자리는 중기부의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정책과 과기정통부의 피지컬 AI 기술개발·실증 역량을 연계해 기술개발에서 현장 적용, 확산까지 이어지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부처는 현장 수요를 반영한 피지컬 AI 기술개발과 실증을 지원하고, 피지컬 AI 얼라이언스 등 민관협력체계를 통해 기술 공급기업과 수요기업을 연결해 중소제조기업의 피지컬 AI 도입을 지원한다.

이번 협력의 대표 과제로 ‘모두의 AI 공장장’과 ‘스마트제조혁신’을 통한 중소제조기업의 피지컬 AI 도입·확산을 추진한다.

과기부는 전북(무인공장 제어·운용)·경남(조정밀 제조 지능화) 지역실증을 통해 확보한 피지컬 AI 기반 풀스택 솔루션을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한다. 이를 통해 물류·생산 전과정 자동화를 위한 설계·분석·조달·교육 컨설팅과 공장

운영시스템 등을 제공한다.

중기부는 피지컬 AI 풀스택 기술이 스마트공장 보급을 통해 실제 중소제조 현장에 구현될 수 있도록 피지컬 AI 기반 제조 환경 구축과 실증을 지원한다.

특히 중소기업이 과기부의 ‘모두의 AI 공장장’ 서비스 활용과 중기부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특화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실증 우수 성과는 향후 구축할 ‘제조AI 24’ 플랫폼을 통해 제공한다.

또 피지컬 AI의 제조 현장 확산뿐만 아니라 신성장분야를 중심으로 피지컬 AI 미래 경쟁력 확보 지원을 위한 부처 공동 연구개발(R&D)도 기획·추진할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넥센타이어, 신형 아반떼 타이어 공급

지역별 주행환경 맞춤 제품 적용

넥센타이어가 현대자동차의 8세대 완전변경 모델 ‘디올 뉴 아반떼’에 지역별 주행 환경을 고려한 신차용 타이어(OE)를 공급한다.

넥센타이어는 지난 8월 출시한 디올 뉴 아반떼에 신차용 타이어를 공급한다고 7일 밝혔다. 아반떼가 판매되는 지역의 기후와 도로 환경에 맞춰 서로 다른 제품을 순차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국내와 북미 시장에는 사계절용 ‘엔프리즈 S(N’PRIZ S)’ 16·18인치가 장착된다. 눈길 주행 안정성과 정숙성, 연비·내마모 성능을 고려한 제품이다.

유럽에는 젓은 노면에서의 제동력과 핸들링 성능을 강화한 여름용 ‘엔블루 S

(N’BLUE S)’ 16인치가 공급된다. 중동에는 엔블루 S 16인치와 장거리 주행에 적합하도록 내마모 성능을 높인 ‘엔페라프리머스(N’FERA Primus)’ 18인치가 적용된다.

넥센타이어는 포르쉐·메르세데스-벤츠·BMW·아우디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 신차용 타이어를 공급하고 있다. 회사는 차종과 시장 특성에 맞춘 제품 공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넥센타이어 관계자는 “이번 신형 아반떼 공급을 통해 국내외 다양한 시장의 운전자들과 접점을 넓힐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장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제품 공급으로 글로벌 완성차 업체와의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승혁 기자 sh95@

고려아연 주총, MBK·영풍 의결권 제한 시도 불발

법원, 의결권 가처분 전부 기각
차입처·담보계약 허위단정 어려움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MBK파트너스·영풍이 제기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전부 기각됐다. 법원은 MBK·영풍이 문제 삼은 차입처와 담보계약 관련 공시가 의결권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오는 9일 임시주총을 앞두고 현 경영진 측의 의결권을 제한하려던 MBK·영풍의 시도가 무산되면서 오히려 역풍을 맞는 모습이다.

7일 고려아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는 지난 4일 한국기업투자회사와 영풍이 고려아연 및 최윤범 회장 측 주주 등을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을 전부 기각했다. 소송비용도 신청인 측이 부담하도록 했다.



고려아연.

이번 가처분은 최 회장 측 피23파트너스가 트로이카 드라이브 인베스트먼트로부터 고려아연 주식 41만9082주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공시가 쟁점이 됐다. MBK·영풍은 대출기관과 담보계약 상대방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중요 정보를 누락했다며 해당 지분의 의결권 제한을 요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량보유상황보고서에 기재되는 ‘차입처’를 자본시장법상의 결권 제한 사유가 되는 중요사항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최초 보

고서에 담보계약 상대방으로 메리츠증권을 기재한 것도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후 대주단 구성과 주요 계약 내용이 추가로 정정 공시된 점도 고려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현 경영진 측이 관련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누락하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의결권 제한의 전제가 되는 권리가 충분히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으로 9일 열리는 임시주총에서 양측의 지분을 둘러싼 표 대결 구도에도 변화가 없게 됐다. 독립이사와 감사위원 선임 등을 놓고 맞붙는 만큼 실제 의결권 행사 규모와 주주들의 선택이 승패를 가를 전망이다. 고려아연은 법원의 판단을 계기로 후보자의 전문성과 독립성, 중장기 기업가치를 중심으로 주주들이 판단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

중진공, 청년 창업가 성장·투자유치 지원

전국 19개 청창사서 24개 행사 개최
투자유치·청렴윤리·사회공헌 등 운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청년의 날(9월 19일)과 청년주간(9월 19일~9월 25일)을 맞아 전국 19개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지역 청년 창업가를 위한 맞춤형 소통 행사를 개최한다.

7일 중진공에 따르면 이번 청년주간 행사는 청년 창업가들의 기업 성장과 사회적 책임 이행에 중점을 두고 투자유치(IR)와 청렴윤리, 사회공헌 등 ESG 프로그램 위주로 구성·운영한다. 중진공은 IR 행사를 통해 청년 창업가들의 투자유치 역량과 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다양한 ESG 활동을 전개해 지역사회와의 지속가능한 소통을 도모할 방침이다.

청년창업사관학교선 이달 중 총 24개 행사를 지역별 일정에 따라 추진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충북·전북 청년창업사관학교가 연합해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하는 ‘Dual-Impact Demoday’ ▲지역 투자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강원 청년창업사관학교 기관연합 Closed IR’ ▲딥테크 분야 기술 교류를 위한 ‘딥테크창업사관학교 기술교류회’ ▲‘경북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고기업 ESG 활동 with 지역사회’ ▲청년 창업가들이 직접 참여하는 ‘청년CEO 플로깅 데이’ 등 현장 밀착형 행사가 이어진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2011년 개교 이래 청년 창업 전문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올해는 950명의 우수한 청년창업가를 선발해 기본과정과 심화과정(글로벌, 딥테크)으로 나눠 분야별 전문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